

## [ 종합·해설 ]

대통령 방문 후 지역 현안 후속대책 박차

# 조속 추진 약속…이젠 소관부처 나서라

광주시·전남도 실무작업 빨 빠르게 착수

R&amp;D특구·J프로젝트 등 ‘탄력’ 받을 듯

지난 16일 광주·전남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 대형 현안 사업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자 광주시와 전남도는 즉각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의 지원 약속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시·도는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나 내부적으로 이견을 보여왔던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의 협상을 통해 사업 추진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도는 대통령의 확약이 ‘빈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소관부처의 정책실현 의지가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주문하고 있다.

◇현안추진 활기= 광주시는 18일, 광주R&D특구 지정 등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한 대통령의 지원 약속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TF(특별기구)를 재개동키로 하는 등 현안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

도록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우선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가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가능한 한 앞당겨서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광주 R&D특구’에 대해서도 이번 대통령의 지원 약속으로 조만간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CT연구원)의 광주 설립, 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 조성 사업도 활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이 대통령이 J프로젝트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 지역 최대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보여준 만큼, 조만간 실무를 담당한 정부 부처와 협의를 갖고 새로운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해남과 영암 일대 간척지 이용방안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왔던 농림수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광주시·전남도의 현안사업들이 탄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가 예산·제도적 지원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광주시·전남도 업무보고.

식품부에 대해서는 J프로젝트의 사업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 내부의 반대기류를 누그러뜨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F1역시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단순한 스포츠이벤트가 아니라, 자동차산업 및 전남관광산업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네리 알려나갈 방침이다.

◇관건은 소관부처 의지= 그러나 시·도는 이들 사업이 대통령의 의지표명에 도 지금까지 정부 부처간 이견 등으로 결

실을 보지 못한 만큼, 정부가 행·재정적 지원방법을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 군

형 발전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들

사업은 경제성과 파급효과라는 획일적

기준에만 의지하는 정부의 획일적인 입장

가 된다는 점을 네리 알려나갈 방침이다.

◇관건은 소관부처 의지= 그러나 시·

도는 이들 사업이 대통령의 의지표명에

도 지금까지 정부 부처간 이견 등으로 결

의 장관은 신중하고, 그 밖의 공무원들은 더 신중하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통령의 약속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야 말로 부처의 예산과 제도적인 지원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또 다시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현안사업들이 걸돌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불법 시위 강력 대응 원칙주의자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불법 시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촛불집회가 절정을 이루던 작년 8월 서울경찰청장으로 부임해 촛불집회를 성공적으로 진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최루액과 색소분사기 사용, 검거 위주의 진압 같은 강경 대응책을 내놓았고, 유모차 부대와 청소년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연수경찰서장 시절에 경찰의 마스코트인 ‘포풀리’를 고안하는 등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소신파로도 알려져 있다. ▲경북 영일(55·간부후보 27기) ▲대륜고 ▲영남대 행정학과·동국대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경찰청 경무기획국장 ▲경북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장

## 국무총리 지내…화려한 공직 경험

한덕수 주미대사 내정자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차곡차곡 밟아 국무총리까지 오른 정통 경제관료.

국민의 정부에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에 취임한 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청와대 정책기획경제수석 등을 역임했다. 미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로 영어 실력이 출중하다는 평가.

반면 화려한 공직 속에 입신을 위해 권력의 향배에 민감한 ‘처세의 달인’이란 부정적 평가도 있지 않다. ▲전북 전주(60)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정책기획·경제수석 비서관 ▲국무총리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 ‘빅4’ 권력 ‘PK’서 ‘TK’로

신임 국정원장·경찰청장 두자리 모두 경북 출신

## 내각 참여냐 보선 출마냐

개각 앞둔 정치권 3월 귀국 이재오 거취 촉각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이른바 4대 사정기관의 권력 중심이 ‘PK’(부산·경남)에서 ‘TK’(대구·경북)로 전환됐다.

반면 호남 인맥의 중심은 ‘혹시나에서 역시나’로 끝났다.

18일 확정 발표된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각각 경북 영주, 경북 영일 출신이다.

김성호 현 원장이 경남 남해, 어정수 청장이 경남 진양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두 자리가 모두 경남에서 경북으로 바뀐 것이다.

여기에 경남 남해 출신의 임채진 경찰총장의 유임이 확정된 만큼 충남 태안 출신의 한상률 국세청장의 후임이 누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후임 국세청장이 경남 출신이 아니라면 TK 출신이 4대 권력기관 가운데 2곳을 점하면서 PK에 비해 우위를 나타내게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북 포함 출신이라는 점에서 TK 출

신이 발탁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의 모든 인사는 적재적소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호남 출신 기용은 인재 풀 등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앙상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원세훈 국정원장, 김석기 경찰청장을 내정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MB맨과 TK인사로 집안잔치를 했다”고 질타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을 무시한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를 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명수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국민이 기대했던 탐험인사와는 거리가 먼 영남, 서울시 인맥의 재판으로서 ‘고소영’ 인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박승호 민노당 대변인도 “무늬만 같아입은 이명박 친정체제 완성으로 국민의 바람을 또 한번 배신했다”고 비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개각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재오 전 의원의 거취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각에서 이재오 전 의원이 포함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이 3월초께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개각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내각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이 전 의원은 일단 여의도에서의 ‘자리잡기’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줄곧 미국에서 생활하다 서울에서 비행기편으로 2시간 남짓 떨어진 중국 베이징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점도 이 전 의원이 귀국후 역할론을 펼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은 여권 내부의 갈등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보다 신중한 시기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무안 – 장새(장가게) 무안 – 상해(방록) 무안 공항 직항!!!

• 공항 주차장 무료 이용

• 국립 과대의 한복도를 주는 광주MBC문화원방  
인터넷주소: [www.kmbs.or.kr](http://www.kmbs.or.kr)

“기획의 끝까지 시종려 차녀! 다녀옵니다”

### 무안 – 장새(장가게) 직항!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 AM: 무안 – 장새(장가게) – 서울

• 12:00 PM: 무안 – 장새(장가게) – 부산

• 3:00 PM: 무안 – 장새(장가게) – 대구

• 5:00 PM: 무안 – 장새(장가게) – 광주

• 7:00 PM: 무안 – 장새(장가게) – 인천

• 9:00 PM: 무안 – 장새(장가게) – 제주

### 무안 – 상해(방록)!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 AM: 무안 – 상해(방록) – 서울

• 12:00 PM: 무안 – 상해(방록) – 부산

• 3:00 PM: 무안 – 상해(방록) – 대구

• 5:00 PM: 무안 – 상해(방록) – 광주

• 7:00 PM: 무안 – 상해(방록) – 인천

• 9:00 PM: 무안 – 상해(방록) – 제주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 AM: 무안 – 상해(방록) – 서울

• 12:00 PM: 무안 – 상해(방록) – 부산

• 3:00 PM: 무안 – 상해(방록) – 대구

• 5:00 PM: 무안 – 상해(방록) – 광주

• 7:00 PM: 무안 – 상해(방록) – 인천

• 9:00 PM: 무안 – 상해(방록) – 제주



中華人民共和国  
광주MBC문화원방

국제

空港

국제

空港